



항기
 도반의

인생의 가장 힘든 고비에 이웃의 어려움을 깨닫게 된 김상문 회장.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그의 집을 나선다.



청주불교신행회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소년원 아이들을 위한 간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처님 일은 하려고 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 김 회장의 미소가 부처님의 그것과 닮아있다.

옳다 싶으면 실천해야죠

청주불교신행회 김상문 회장

사람들은 건디기 힘든 시련에 부딪치면 기도를 한다. 가족의 병만 낫게 해 주면, 실패한 사업을 재기하게만 해 주면, 내 아이들이 대학에 불게만 해 주면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노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건 기도라기보다 일종의 '거래'에 가깝다.

청주불교신행회 김상문(54) 회장은 인생의 가장 힘든 고비에 봉사라는 문을 두드렸다. 교직에 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역시 매일 법당에서 기도를 했다. 일심(一心)으로 기도를 하며 남편의 병이 낫기를 바랐다.

소년원 방문 엄마의 손길 전하기 10년째 대학 입학한 아이들 전화하면 마냥 행복 을 3월 불교대학 개원, 인재양성에 전력 출·재가 노후 함께하는 수행공동체 계획

하지만 문득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에 혼자 누워있을 김 할머니, 합의를 잃어 열다섯 나이에 소년원에 가게 된 민재(가명),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보육원에 맡겨진 한 살배기 수정(가명), 자신이 어려울 때 다정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와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처럼, 그들이 애타게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어려운 사정은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병석에 있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지 한 달 만에 남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건강한 몸으로 교단으로 돌아갔다. 10여 년 전부터 청주불교신행회의 운전봉사를 해 오던 그에게는 신행회 일을 도맡아 하게 될 일이 생겼다. 청주불교신행회를 창립한 신호식 거사가 2003년 급작스럽게 타계한 것이다.

"신 회장님이 늘 힘들고 어렵게 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운영을 맡게 돼 통장정리를 해 보니 잔고가 1만600원에 불과하더군요. 300~400여 명이 이르던 회원도 반으로 줄고... 하지만 신 회장님과 재가불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신행회의 문을 닫을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서 세워야 해요."

그때부터 김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달걀을 떼다 팔고 헌옷을 기증받아 판매하

기도 하면서 기금을 모았다. 그 돈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해 드리고 아플 때면 차로 병원에도 모시고 갔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소년원 방문도 빼놓을 수 없었다. 매주 소년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정성이 듬뿍 담긴 간식을 마련해주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과 등을 두드려주는 엄마의 손길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걸 그는 안다. 종교를 강요하지도, 지나친 간섭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매주 법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 제자가 될 짝을 키워가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불교반 아이들 중 3명이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 100만원을 어렵게 마련해 건넸다. 그 아이들이 대학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다며 전화를 한 날, 김 회장은 법당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얼마 전에는 신행회 사무실과 법당을 현재 위치한 상당구 북문로로 옮겨왔다. 버려진 소파나 식탁, 책꽂이 등을 주워와 사무실을 꾸렸고, 법당에는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여법하게 부처님도 모셨다. 이렇듯 새벽같이 신행회 사무실에 나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김 회장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마음도 안타깝다. 신만덕장(72) 보살은 "우리 회장님은 밥 굶는 걸 일삼아 하는 분"이라고 말한다.

"혼자 저렇게 동분서주하는 것 보면 너무 기특하지. 근데 내 며느리나 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워. 내 며느리였으면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박을 거야.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앞으로 우리 회장님 도와서 이 일 이어나갈 사람이 빨리 나타나야 할 텐데 말이야."

이제 조금씩 신행회 활동이 자리를 잡아간 나 했는데, 지난해 김 회장은 또 다른 일을 벌였다. 불자들 신행활동의 등불이 될 불교대학을 개원하기로 한 것이다. "옳다 싶으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는 김 회장은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랜 준비기간 끝에 3월 7일 문을 연 청주불교신행회 부설 동산불교대학 청주지회에는 50여 명의 불자들이 입학해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불교대학을 개원하면서 부처님 일은 하려고 하면 다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아직 성하니, 뭐라도 더 할 일이 있겠지요."

마음먹은 일은 당장 해내고야 마는 김 회장이지만, 그에게도 아직 진행형인 계획이 하나 있다. 바로 출·재가가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수행공동체'를 일구는 일이다.

"남녀노소, 출·재가를 불문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모 자식이 되어주고 눈과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 인연을 세상에 회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이렇게 원을 세웠으니 언젠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부처님 인연으로 사람을 만나 인연 맺는 일이 너무나 즐겁다는 김상문 회장.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 못하죠. 신행회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건 집 현관문 들어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집에서 힘들었던 일은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하면 싹 없어집니다. '힘들다'는 마음의 싹이 자라지 않게 수시로 마음을 쓸어내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버려야 살게 되는 진리를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043)252-0305

청주/글=여수경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6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 초청공연

귀의 삼보하옵고,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1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통적인 불교무용을 통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싶은 사암(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행사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행사

- 일시 : 2006년 3월 25일 - 5월 31일 (65일간) ● 초청 : 국제불교교류협회, 불교상조(국민상조)
- 공연시간
 A time : 30분 / B time : 1시간 / C time : 1시간 30분 (총인원 - 남,여 무용단 15명)
- 후원 : 스리랑카 주한 대사관 /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 동국대학교 총동림회 포교분과 위원회
- 공연상담 : 011)581-8851 / 011)1714-8851 www.kookminsangjo.co.kr



Traditional 'Vannam' Dancers Kandyan 'Ves' Dancer & Drummers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과 국제불교 교류협회의 초청에는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캔디안 댄스 - 캔디안 댄스는 스리랑카 캔디왕국(1597년-1815년)의 통치자의 후원 아래에서 번영을 이룬 고전적인 춤이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세가지 전통춤 중 하나이며 매우 정교한 의상과 드럼, 작은 심벌로 연주하는 고도로 발달된 리듬으로 관중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